두산아트랩 공연 2026 ⑥

진윤선
나의 땅은 어디인가

3.12(목)~3.14(토) 목금 7시 30분 / 토 3시 @두산아트센터 Space111
쇼케이스 85분
*아티스트 토크 3.14(토) 3시 공연 후
아티스트 토크는 두산아트센터 팟캐스트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www.podbbang.com/ch/75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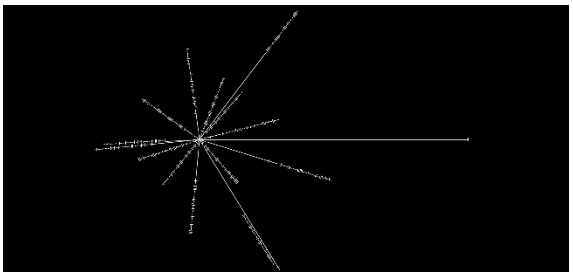
두산아트랩은 관객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공연 관람 후 온라인 관객 설문에 참여해 주세요.
작성해주신 의견은 창작자에게 전달되어
작품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출가 1인 프로젝트인 스칸도 프로젝트를 운영 중인 진윤선입니다. '스칸도(Scando)'는 라틴어로 '가로질러 올라가다'라는 뜻으로, 철학자 에마뉘엘 레비나스(Emmanuel Levinas)가 초월을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가능한, 횡단이자 상승의 운동이라고 설명한 말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저의 작업은 삶의 길목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마주하고, 그 만남을 통해 어떻게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탐색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저는 연대를 하나의 선언이라기보다 '기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누군가 곁에 있다는 느낌. 그 희미한 존재감이 우리가 다음의 아주 작은 반걸음을 내딛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_ 작·연출 진윤선

작가 노트

〈나의 땅은 어디인가〉는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존재들에 관한 질문으로 확장된 작품입니다. 이 인물들은 서로 직접 만나지 않고, 만날 수 없는 대상에게 편지를 쓰고, 해결되지 않는 질문을 던집니다. 알고자 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 이별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로 각자의 시간을 따라 흘러가며, 좌표처럼 흩어진 존재들이 무대에 있습니다. 이 구조를 저는 '펄서 지도'에 비유합니다. 펄서는 일정한 신호를 보내며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는 천체인데, 이 작품에서도 인물들 각자의 순간이 모두 고유한 신호를 발신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작품의 구조

'우리는 서로의 좌표계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떠나야 하는지, 왜 지금 여기 서 있는지, 그리고 이곳을 정말 내가 딛고 있는 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지 등 그동안 품어온 질문의 마음들을 하나의 지지대로 삼고 있습니다.
작품 속 인물들은 서로 만나지 않고 서로 다른 상황에 놓여 있지만, 각자의 고립과 유예의 순간 속에서 교차되는 질문과 어떤 감각을 품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이 처한 조건의 차이보다 어떤 마음을 품어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그 마음이 전혀 다른 누군가의 순간과 갑자기 맞닿을 수 있는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어 본 적은 없지만, 서로의 시간을 가로질러 공명하는 순간이 무대 위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관객분들과 만나보고 싶습니다.

1부에 대해

이야기는 누군가의 뒷모습을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앞선 이를 따라 걷고 싶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낯선 곳에 놓여,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던 날. 내 앞에 풍경과 나만 덩그러니 있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막막해지던 어느 겨울.

2부에는 이번 쇼케이스에는 등장하지 않은 세 명의 인물로 구성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별개의 이야기, 다른 구조의 공연으로 존재하지 않을까 합니다. '나의 땅은 어디인가' 1부를 찾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연습을 진행하며 저희 배우들이 매일 칠판을 채워간 그림입니다. 작품 안의 여러 요소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동료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참 기뻤습니다.

스칸도 프로젝트 인스타그램
@scandoproject

두산아트랩 공연 2026
진윤선 <나의 땅은 어디인가>
2026.3.12-3.14 두산아트센터 Space111

기획 두산아트센터
작.연출 진윤선

출연 김예은 박예리 이우람 이주협
시노그래퍼 유태희
드라마터그 배소현
조명 김소현
조명 오퍼레이터 이채빈
조명팀 STAGEWORKS 정찬영 김형준 양가영 이채빈 손태민
사운드·사운드 오퍼레이터 박진호
자막·자막 오퍼레이터 성다인
자문 이소영
프로덕션 무대감독 유성엽

[두산아트랩 공연 2027 공모 안내]
일정 2026.5.4~2026.5.28
대상 40세 이하, 한국 국적 예술가, 장르 제한 없음
*자세한 내용은 추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두산아트랩은 40세 이하 젊은 예술가들이
새로운 작품을 실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